2026.9.27	연중 제 26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36번>	<폴더 44번>	<폴더 39번>	<폴더 23번>
내 손을 주께 높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송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제 1독서 | 에제키엘 18,25-28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독서 | 필리피서 2,1-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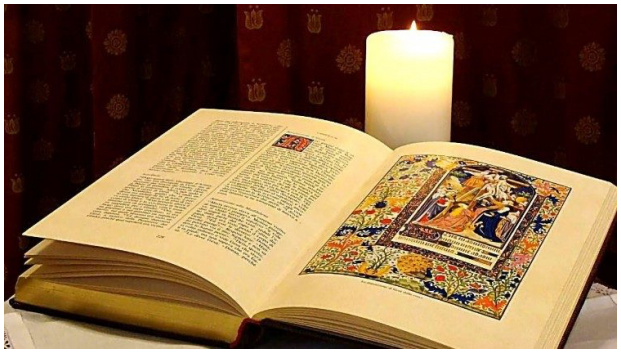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1,28-32

영성체송 |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5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26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27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28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복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늘의 복음해설>

포도밭에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요청에, 맏아들은 충동적으로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즉시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은 것입니다. 순명은 "예"나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이뤄집니다. 포도밭을 일구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고, 선을 행하는 행동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실천으로만 여겨지던 신앙심을 극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심은 그 사람의 삶이나 태도에 새겨지지 않는 피상적인 신앙, 단순히 "의례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회심, 곧 마음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떠한 포기 없이 그리고 영적 투쟁 없이 성덕의 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참행복의 평화와 기쁨 속에 살기 위해 선을 위해 싸우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로 만나는 은총의 순간 <환희의 신비 4-5단> : Sr.최지영 프란치스카

<환희의 신비 4단 | 인내의 열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루카 2,22)

이 성전 봉헌의 장면에 등장하는 예언자 안나는 "약 여든네 살의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밤낮으로 섬기던 이"(루카 2,37 참조)로 소개된다. 그녀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함의 상징이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구원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깨어 있었다. 이 신비는 우리에게 보여 준다. 환희는 즉각적으로 오는 감정의 고양이 아닌, 시간 속에서 더디게 여물어 가는 인내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곁에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하루를 봉헌하는 이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룩한 임종을 돕는 봉사자들,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주님께 희망을 두며 매일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쳐지는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마치 성막을 감싼 구름과 불기둥처럼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여기'에 머문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탈출 40,38)

<환희의 신비 5단 | 마음에 간직하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열두 살 예수의 이 말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그분의 첫 번째 공적 말씀이다. 짧지만, 그 속에는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이 온전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이는 다름 아닌, 그분을 낳고 기르며 사랑으로 삶을 함께해 온 부모들이었다. 타지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흘간 애타게 찾아 헤맨 끝에 마주한 대답이 "저를 왜 찾으셨습니까?"라니……. 보통의 부모라면 으레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기대와 애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서운함과 원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기도를 바쳤는데 내가 바라는 응답은 없는 듯하고, 나의 헌신과 봉사는 마치 14억 가톨릭 교회의 바닷속에 부유하는 모래 하나쯤의 무게로 외면당하는 듯 느껴질 때, 왠지 하느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핵심은 그분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단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안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깊은 자각에 있다. 그의 부모는 이제 아들이 하느님의 일 안에 머물기 위해, 자신들과의 정서적 연결도 초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거스르고, 그렇기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준다. 마리아 역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루카 2,51)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말 없는 수용과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오래 숙성되어 피어나는 기쁨이 담겨 있다.

기쁨의 은총을 청하며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나 이해를 보류(epoché)하는 기다림의 태도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마음속에 불만을 담아 두는 '앙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언제나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논리로 해석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응답했고,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했다.

묵주 기도는 바로 이러한 '느림'과 '기다림'을 품은 기도다. 천천히, 마치 호흡하듯 성모송을 되뇌는 동안, 우리는 신비의 장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느님의 기쁨 안에서 조금씩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공지 사항

1. 세례를 앞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10월 25일에 세례성사를 받는 다음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신자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인숙, 신미란, 차진아, 이효령, 신정인
허린, 오성배, 양현희, 유아인, 서정환

2. 추석 명절 - 식사 나눔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한가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준비 및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3. <여정 시즌 9> 성경 나눔 온라인 모임 안내

- 9월 29일(화), 저녁 7시
- 10월 6일(화), 저녁 7시
- 10월 27일(화), 저녁 7시

<다음 모임을 위하여 아래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1코린 12-14장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회의실 ID**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9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고다인 라파엘라 (9.29)**
*** 김우경 가브리엘라 (9.29)**
*** 박정연 미카엘 (9.29)**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9월 19일 ~ 9월 25일)

봉헌금	$ 189	
교무금	$ 540	

구민식	신미란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9월 공동체 실천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